Deloitte Insights

AI-generated Image

November 2026



Issue Brief

기후공시와 재무제표는 어디에서 연결되는가

기후 관련 위험·계획·가정과 주요 재무제표 항목의 연결 포인트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01



기후공시 이후 중요해지는 재무정보의 연결

003

02



기후정보와 재무제표가 만나는 주요 지점

005

03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가정과 추정

Case. 실제 공시에서 나타난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

007

04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와 향후 구체화 과제

011



01
기후공시 이후 중요해지는 재무정보의 연결

2026년 2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와 제2호가 공표되고, 7월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기후공시의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되었다.[1]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7 회계연도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 이에 따라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정보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공시에서 제시한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 회계연도가 첫 의무공시 대상기간이 되는 만큼, 2026년 결산은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 관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중요한 준비 시점이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제2호와 그 토대가 된 IFRS S1·S2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와 재무정보의 연결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다룬다.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사이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양쪽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가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IFRS S2(기후 관련 공시기준)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보고기간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친 현재 재무적 영향과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예상 재무적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3]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IFRS재단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결정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 공시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실제로 생산시설의 조기 폐쇄나 전환계획은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손상검사에 사용하는 미래 현금흐름과 주요 가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4] 또한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나 기존 설비의 처분계획 역시 향후 재무상태와 현금흐름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다만 기후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그 영향이 반드시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공시에서 설명하는 예상 재무적 영향과 재무제표에 인식·측정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하며, 각 회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에서 동일한 위험과 계획을 다룰 때 관련 정보와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02

기후정보와 재무제표가 만나는 주요 지점

기후 관련 위험과 전환계획은 자산의 가치와 사용기간, 부채의 인식·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등 다양한 회계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 IFRS재단은 기후 관련 사항의 영향이 중요한 경우 기존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2025년 11월 기후 관련 상황을 예로 들어 재무제표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공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를 발표했다.[6] 주요 연결 영역과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후 관련 위험·전환계획과 주요 재무정보의 연결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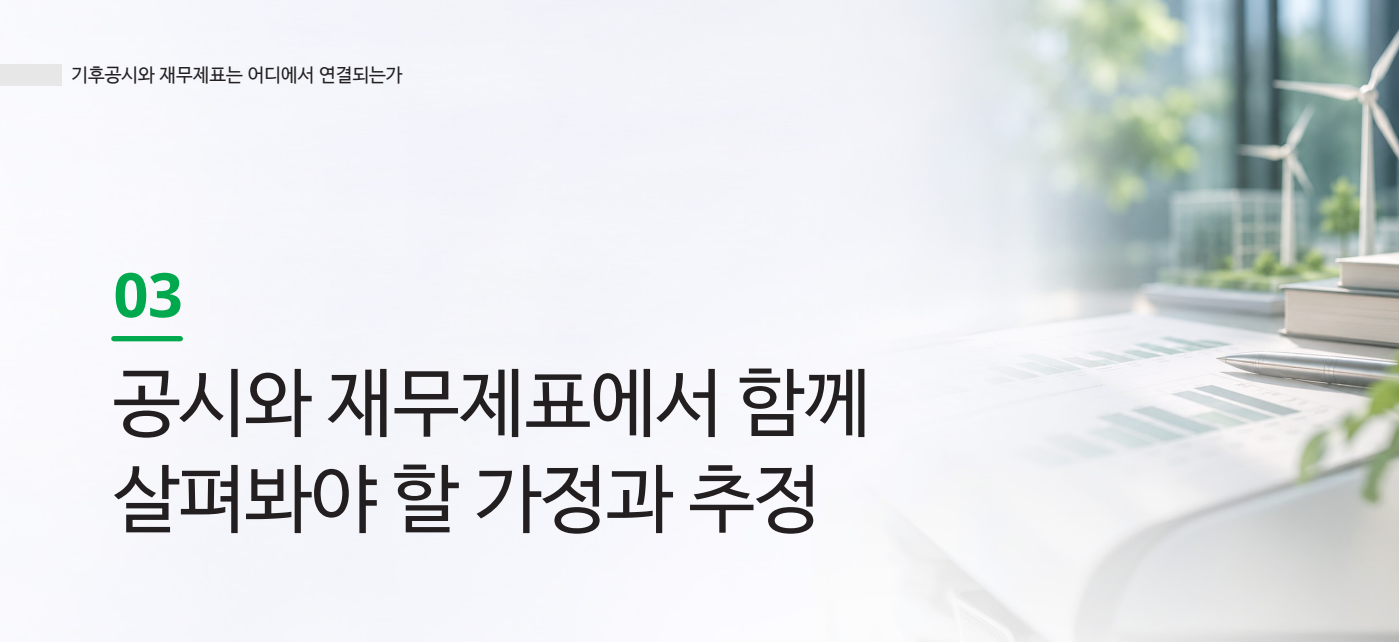
기후 관련 정보	주요 연결 영역	검토할 사항
생산 중단·설비 폐쇄, 기술·규제 변화	**내용연수·잔존가치, 자산손상**	기후 관련 변화로 자산의 사용기간이나 잔존가치가 달라지는지, 수요 감소·규제 변화 등이 손상 징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손상검사 시에는 기후 관련 사항이 미래 현금흐름과 주요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한다.
환경복구 의무, 규제 변화, 사업 재편	**충당부채·우발부채**	환경복구 의무,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금, 손실부담계약, 제품·서비스 재설계를 위한 구조조정 등이 부채의 인식·측정·공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물리적 위험·전환위험에 노출된 거래상대방	**금융상품·신용위험**	홍수·산불이나 정책·규제 변화가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용위험 증가와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되는지 검토한다.
저탄소 투자, 자산 처분·폐쇄, 사업 전환	**투자·처분계획, 재무성과·현금흐름**	기후전략에 따른 자본적 지출, 자산 처분·폐쇄, 신규 사업 투자 등이 향후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 전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주: 주요 연결 영역은 IFRS재단의 교육자료와 IASB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식·측정 결과는 관련 회계기준과 기업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료: IFRS Foundation(2023, 2025)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가운데 기업이 특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기후 관련 위험과 계획이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다. 예를 들어 기후공시에서 생산시설의 조기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손상검사에 적용한 가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기후 관련 위험이나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설비 폐쇄계획이 있더라도 자산손상이나 충당부채의 인식 여부는 각각 IAS 36(자산손상)과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등 관련 회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공시에서 설명하는 예상 재무적 영향과 재무제표에 인식·측정되는 금액을 구분하면서, 동일한 위험과 계획에 대해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사용하는 주요 가정과 추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03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가정과 추정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에서 동일한 위험과 계획을 다루더라도 관련 수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가정이 관련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일관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쪽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가정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7] 따라서 기업은 수치의 일치 여부보다 동일한 위험과 계획에 사용한 주요 데이터와 가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시설을 조기에 폐쇄할 계획이라면 기후공시에는 폐쇄 일정과 관련 투자·비용, 예상 재무적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재무제표에서는 해당 계획이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손상검사에 사용하는 미래 현금흐름과 주요 가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후공시에 제시한 계획의 영향이 당기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 IFRS재단도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나 약속이 있더라도 회계기준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당기 재무제표에는 아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8]

양쪽 정보의 차이는 전망과 추정의 대상 기간, 적용 회계기준의 인식·측정 요건, 미래 수요와 비용 등에 관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후공시의 예상 재무적 영향은 단기·중기·장기 전망을 포함하는 반면, 재무제표의 인식·측정은 보고기간 말 현재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IFRS S2는 예상 재무적 영향을 단일 금액 또는 범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량정보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거나 측정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량정보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량정보 제공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9] 따라서 기후공시의 중장기 전망과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측정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두 정보가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업은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에 사용한 주요 데이터와 가정의 출처, 적용 시점과 대상 기간,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 근거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위험과 계획에 서로 다른 가정을 적용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FRS S1은 양쪽에 사용한 데이터와 가정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림 2.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 시 확인할 사항



주: 예상 재무적 영향과 재무제표에 인식·측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적용 시점·대상 기간이나 관련 회계기준의 인식·측정 요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2026), IFRS S1(2023), IFRS Foundation(2025)을 바탕으로 작성

Case. 실제 공시에서 나타난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은 실제 기업 공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석유화학 기업 쉘(Shell)과 호주 기반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Woodside)는 기후 관련 위험과 전환계획의 재무적 영향을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함께 설명하고, 관련 재무제표 주석을 직접 참조하고 있다.

그림 3. 기후공시와 재무제표 연계의 글로벌 공시사례

	쉘(Shell)	우드사이드(Woodside)
공시 기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명세서 (Sustainability Statements)	호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AASB S2)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재무제표에서의 연결	재무제표 주석 4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에서 기후 관련 전환위험·물리적 위험의 재무영향과 주요 가정을 공시 • 자산가치 및 내용연수 • 손상검사 및 주요 가정 • 탄소가격 및 관련 민감도 • 복구충당부채	재무제표 주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에서 기후 관련 재무영향과 주요 가정을 공시 • 유가 및 탄소가격 • 자산의 내용연수 단축 가능성 • 손상검사 • 복구충당부채 • 탄소배출권의 사용 및 재고자산 인식
지속가능성 공시에서의 연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E1 기후변화 공시에서 재무제표 주석 4를 직접 참조 •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 탄소가격 및 관련 비용 • 주요 재무적 가정과 민감도	호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공시 인덱스(AASB S2 Index)와 기후 관련 공시에서 관련 재무제표 주석을 직접 참조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손상검사 • 복구충당부채 • 탄소배출권 사용 및 재고자산(ACCUs) •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감사·검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선정 • 기후 관련 설명과 재무제표에 사용한 주요 가정·판단 간 정합성 검토	AASB S2에 따른 지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항목에 제한적 인증업무(Limited Assurance) 적용 • 거버넌스 • 일부 기후 관련 위험·기회 정보 •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등 1년차 제한적 인증 대상

주: 쉘은 2025년 연차보고서에 ESRS에 따른 Sustainability Statements를 자발적으로 포함했다. 우드사이드는 ISSB의 IFRS S2를 기반으로 호주 법·제도 환경을 반영해 제정된 AASB S2를 적용했다. 두 사례는 에너지 기업의 공시사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공시·검증 범위는 기업별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료: Shell,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Woodside Energy, Annual Report 2025

두 사례는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수치를 단순히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후 관련 위험과 계획이 재무정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련 주석과 가정을 통해 연결해 보여준다.

쉘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기후 관련 재무제표 주석을 직접 참조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기후 관련 목표·전략과 재무제표의 주요 판단·추정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감사보고서는 해당 정보 사이에서 중요한 불일치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10]

우드사이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가 동일한 보고기간과 표시통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공시 인덱스를 통해 기후공시 요구사항을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손상검사, 복구충당부채 및 탄소배출권 관련 재무제표 주석과 연결한다.[11] 이는 공시 이용자가 기후 관련 정보와 해당 정보가 반영된 재무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성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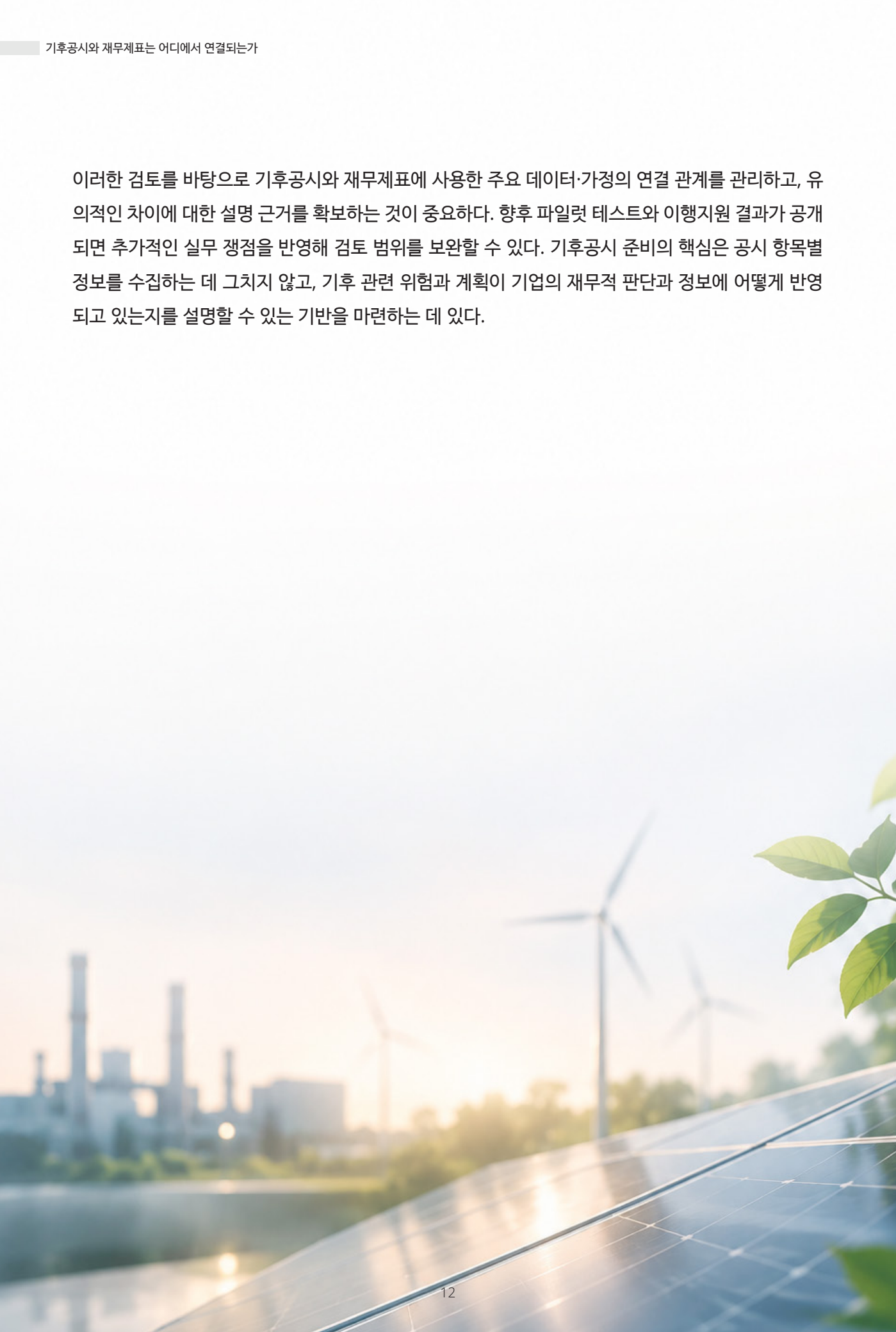
04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와 향후 구체화 과제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검토 영역은 현재 기준과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개별 기업에 적용할 때에는 기후 관련 위험과 전환계획의 구체성, 실행 시점, 계약이나 법적 의무의 존재 여부, 자산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같은 전환계획이라도 기업의 사업환경과 관련 회계기준의 인식·측정 요건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결성이 실제 감독과 기준 적용의 주요 이슈로 구체화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026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연결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을 정성정보로만 공시한 경우 정량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2] IASB도 2025년 11월 기후 관련 전환계획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해당 계획이 당기 재무제표의 인식·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밖에서 공시한 정보와의 관계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이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13]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의 사례를 반영한 K-IFRS 개정 공개초안[14]을 마련하는 한편, 2026년 KSSB 파일럿 테스트에서 재무적 영향 등을 포함한 52건의 실무 쟁점을 수집해 전문가 TF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15]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의 연결이 단순한 공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위험과 계획이 서로 다른 재무정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향후 이행지원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재무적 영향이 클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과 전환계획을 우선 식별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 회계적 추정,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전망과의 연결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환계획의 실행 일정과 주요 재무적 가정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배경과 관련 회계기준의 적용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후공시와 재무제표에 사용한 주요 데이터·가정의 연결 관계를 관리하고, 유의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파일럿 테스트와 이행지원 결과가 공개되면 추가적인 실무 쟁점을 반영해 검토 범위를 보완할 수 있다. 기후공시 준비의 핵심은 공시 항목별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 관련 위험과 계획이 기업의 재무적 판단과 정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석

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 의결 및 공표, 2026.02.26.
2.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07.08.
3.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제2호「기후 관련 공시」, 2026.02.26.; IFRS Foundation,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2023.6
4. IFRS Foundation, Effects of climate-related matters on financial statements, 2023.7
5. IFRS Foundation,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an entity's climate-related transition, including information about transition plans, in accordance with IFRS S2, 2025.6
6. IASB, Disclosures about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Illustrative examples, November 2025; IFRS Foundation,「IASB issues illustrative examples on reporting uncertainties in financial statements」, 2025.11.28.
7. IFRS Foundation,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2023.6
8. IFRS Foundation,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anticipated financial effects applying ISSB Standards, 2025.8
9. IFRS Foundation,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anticipated financial effects applying ISSB Standards, 2025.8
10. Shell,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2026.3
11. Woodside Energy, Annual Report 2025, 2026.2
12. ASIC, REP 839 ASIC’s review of sustainability reports lodged for 31 December 2025, 2026.9
13. IASB, Disclosures about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Illustrative examples, November 2025; IFRS Foundation,「IASB issues illustrative examples on reporting uncertainties in financial statements」, 2025.11.28.
14. 한국회계기준원, K-IFRS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불확실성 공시-사례’ 검토의견 조회, 2026.06.17.
15. 한국회계기준원, KSSB 공시기준 파일럿 테스트, 쟁점 수집·분석 거쳐 전문가 TF 논의 착수, 2026.10.30.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ESG 통합서비스 그룹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남진 파트너
ESG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02 6676 1997
namcho@deloitte.com

연경흠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 그룹
02 6676 1949
kyeo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 그룹
02 6676 2163
taehpark@deloitte.com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 그룹
02 6676 1454
kyhuh@deloitte.com

김병삼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탄소중립 기후 기술 |
ESG 통합서비스 그룹
02 6099 4277
byungsakim@deloitte.com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 그룹
02 6676 3096
junyoo@deloitte.com

이병훈 상무
Assurance | 회계감사부문
02 6099 4256
byounlee@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리더
권지원 대표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Deputy 리더
서정욱 부대표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디자이너
박근령 Manager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